

5할 승률 못 미친 5위... 4년 만의 가을야구 1경기로 끝나



나성범 영입·양현종 복귀 투·타 보완 ... 원정 속소 '1인 1실' 지원
김종국 감독 '무색무취' 야구 ... 타이거즈 본능 깨우지 못해 아쉬움

〈상〉 화끈한 지원 아쉬운 성적

화끈했던 시작이었지만 추운 가을이 됐다. KIA 타이거즈는 2022시즌을 앞두고 가장 눈길을 끄는 팀이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KIA는 타이거즈 사상 첫 외국인 감독이었던 맷 윌리엄스 감독은 물론 단장, 사장까지 동시에 교체하면서 '변화'를 예고했다. 명가재건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지원도 화끈했다. FA 최대 나성범을 영입하면서 스토브리그의 주인공이 됐고, 양현종도 미국 도전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투·타에 '특급 전력'이 더해졌다. 구단의 지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선수들

의 경기력 극대화를 위해 원정 속소 '1인 1실' 정책도 도입했다. 오랜 고민이었던 야수진의 '신구조화'를 이를 기회로 찾아왔다. '최고참' 최형우와 함께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 나성범 그리고 '주장' 김선빈으로 무게감 있는 타선이 구축됐고, 화제의 신인 김도영과 함께 '23살 예비역' 김석환도 주목하는 신예로 새 시즌을 준비하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컸다. 하지만 결과는 70승 1무 73패(승률 0.490). 5할 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5위로 KIA의 144경기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올 시즌 최종전을 남겨두고 겨우 '가을잔치' 티켓을 확보했고, 이마저도 4위 KT와는 무려 10.5경기

차가 나는 썩스러운 5위였다. 출발부터 좋지 못했다. 양현종을 앞세워 홈에서 치른 LG와의 시즌 개막전, 노련한 김선빈의 연속 실책이 나오면서 기싸움에서 밀린 KIA는 0-9 패로 시즌을 시작했다. '수비'를 우선 강조했던 김종국 감독이었지만 KIA는 흔들리는 수비 속 야수진의 동반부진이 겹치면서 예고와는 다른 시즌이 전개됐다. 전원 새 얼굴로 꾸린 외국인 트리오의 모습도 좋지 못했다. 소크라테스가 5월 MVP로 우뚝 섰지만 시작은 좋지 못했다. 선 놀린과 로니 윌리엄스는 부상과 부진으로 마운드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구장에서 벗어난 초반 움직임에 시범경기에서보

여준 KIA의 기동력과 작전 야구가 이내 실종됐다. 무엇보다 새 사령탑에게 기대했던 '과감함'이 부족했다. 김도영이 KIA의 첫 고졸신인 개막전 리드오프라는 기록을 새로 썼고, '타이거즈의 차세대 거포'로 기대하는 김석환도 개막전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지만 두 미래는 부침 많은 시즌을 보냈다. 선배들의 동반 부진 속 이들의 어깨가 무거워졌고, 사령탑은 이들의 역할을 제한했다. 초반 행보가 꼬인 KIA는 5월 반전의 시간을 보냈다. 18승 8패, 승률 0.692를 기록하면서 3위에 자리했다. 나성범과 함께 황대인, 소크라테스가 뜨거운 타격을 선보이면서 KIA의 순위 싸움에 훈풍이 불었지만 분위기를 이어가지는 못했다. 7월 9승 9패로 제자리걸음은 했지만, 6월 10승 13패, 8월 10승 12패, 9월 8승 14패로 마이너스였다. 잔여 경기 일정이 전개된 10월은 4승 3패. 특히

5강을 확정짓는 7월 KT전에서 황대인을 시작으로 최형우, 김호령의 홈런으로 11-1 대승을 거두면서 '가을잔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지만, 내일은 없는 단판 승부에서도 김종국 감독의 승부수가 아쉬웠다. 예상 가능한 라인업과 경기 운영으로 아쉬움의 시즌을 보냈던 KIA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도 승부수는 없었다. 실수는 실점으로 이어졌고, 흐름을 뒤집을 위협적인 장면은 없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3위 싸움을 하다가 4위로 밀렸던 KT였지만 KIA의 뻗은 흐름에 1차전에서 일방적으로 승부를 끝냈다. 지난 시즌 최하위에 머물렀던 팀 타격 지표가 올 시즌 상위권에 포진했지만, 구슬을 꿰지 못하면서 5위, 1경기로 KIA의 시즌이 끝났다. 타이거즈 본능을 깨워줄 것으로 기대했던 새 사령탑 김종국 감독은 자신만의 야구를 보여주지 못했고 '무색무취'의 야구로 팬들의 아쉬움을 샀다. /연습뉴스 기자 wool@kwangju.co.kr



아시아나항공 '축구국가대표팀' 선전 기원 항공기 운항 17일 인천 아시아나항공 격납고 계류장에 축구국가대표팀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 김민재, 김승규 등 대표팀 선수 사진으로 래핑된 항공기가 세워져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A350 항공기 동체에는 가로 17m·세로 8m 규모, A321 항공기 동체에는 가로 12m·세로 5m 규모로 래핑하였으며, 이 항공기들은 12월까지 국내선을 포함한 미주·유럽·동남아 등 다양한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안산·김우진 올해 세계 양궁 '왕중왕'

멕시코 2022 현대양궁월드컵
안산, 최미선 누르고 금... 김우진, 가르시아 꺾어

안산(광주여대)과 김우진(청주시청)이 올해 세계 남녀 양궁 '왕중왕'에 올랐다. 안산은 16일(현지시간) 멕시코 틀락스칼라에서 열린 2022 현대양궁월드컵 파이널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최미선(순천시청)과의 '집안싸움'에서 6-4(28-30 28-27 28-29 28-26 29-28)로 승리했다. 이로써 안산은 생애 처음으로 출전한 월드컵 파이널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지난해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첫 양궁 3관왕에 오르고, 지난해 미국 양크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과 혼성전 2관왕에 오른 안산은 올해 최고의 공사를 가리는 월드컵 파이널에서도 금메달을 따내 '최강'의 지위를 재확인했다. 월드컵 파이널은 각 종목 월드컵 1~4차 대회 우승자와 상위 랭커 등이 출전하는 '왕중왕전' 성격의 대회다. 올해는 세계선수권이 열리지 않고 청두 아시안게임은 연기돼 월드컵 파이널이 권위 면에서 가장 중요한 양궁 국제대회였다. 2016 리우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최미선은 6년 만에 출전한 월드컵 파이널에서 은메달을 따내 건재함을 과시했다. 최미선이 월드컵 파이널에서 메달을 따낸 것은 2015년 금메달, 2016년 은메달에 이어 이번 은메달이 3번째다. 대만의 방자마오가 동메달 결정전에서 알레한드라 발렌시아(멕시코)를 7-3(29-26 28-28 27-27 29-29 28-25)으로 물리치고 입상했다.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는 김우진(청주시청)이 미겔 알바리노 가르시아(스



안산이 16일(현지시간) 멕시코 틀락스칼라에서 열린 2022 현대양궁월드컵 파이널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최미선(순천시청)과의 '집안싸움'에서 6-4(28-30 28-27 28-29 28-26 29-28)로 승리했다. <세계양궁연맹 홈페이지 캡처>

페인)를 7-1(28-27 30-27 29-29 29-28)로 완파했다. 김우진은 2012년 도쿄, 2017년 로마, 2018년 삼선(터키) 대회에 이어 통산 4번째 월드컵 파이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고교 공사' 김제덕(경북일고)은 도쿄 올림픽 남자 개인전 금메달리스트인 메테 가조스(튀르키예)와 동메달 결정전에서 4-6(28-29 30-29 29-28-30 28-28)으로 겨 입상하지 못했다. 이번 대회는 고3인 김제덕이 고교 졸업 전 마지막으로 출전한 국제대회다. /연합뉴스

남부대 무도경호학과 울산 전국체전 값진 메달

김유성 합기도 페더급 겨루기 금
복싱 이익환·박태건 동메달

남부대학교(총장 서범석) 무도경호학과가 전국체전에서 값진 메달을 수확했다. 남부대 무도경호학과 김유성이 최근 울산에서 끝난 제 103회 전국체전 합기도 종목 남자일반부 페더급 겨루기 부문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합기도가 대한체육회 정식가맹단체로 치러 첫 전국체전에서 거둔 성적이라 더 의미가 있다. 복싱부는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대학부 복싱 52kg급에서 이익환이 대전대 한동

재의 기권으로 동메달을 땀고, 75kg급 박태건은 우석대 유정준과 용인대 전제환을 각각 판정승으로 꺾고 동메달을 얻었다. 특히 박태건은 대회를 앞두고 훈련 과정에서 눈썹 부위를 다쳐 10바늘이나 꿰매는 부상을 당고 값진 메달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남부대 복싱부는 2017년 창단 이후 전국체전 연속 메달 획득이라는 성과도 이뤘다. 최승식 남부대 무도경호학과장은 "주말과 명절에도 쉬지 않고 성실한 자세로 꾸준히 훈련에 임한 학생들의 땀의 결실이다"며 "앞으로 열릴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프로배구 V리그 비디오 판독 대상에 '오버넷' 추가

22일 개막하는 프로배구 2022-2023 V리그에서 비디오 판독 대상이 기존 10개에서 11개로 늘어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7일 "더 공정하고 원활한 리그 운영을 위해 비디오판독 규정을 개정했다"며 "오버넷을 비디오 판독 항목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2021-2022시즌 비디오 판독 항목은 10개(인아웃, 터치아웃, 네트 터치, 안테나 반칙, 라인 반칙, 수비 성공 실책, 후위 경기자 반칙, 리베로 반칙, 포히트, 시차가 있는 더블 컨택)였다.

오버넷이 추가되면서 각 구단은 총 11개 항목의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추가 판독 항목도 11개로 확대했다. 기존 인 아웃과 터치아웃 2개 항목에만 추가 판독을 시행했던 반면 2022-2023시즌부터는 11개의 판독 항목 중 이미 요청한 판독을 제외한 항목 모두에 대해서 추가 판독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순천-프로배구 컵대회에서 시범 운영한 남자부 출전선수 등록 시스템, 팀 태블릿 PC 활용도 정식 운영한다. /연합뉴스